경주 낭산서 신라 왕실사찰 존재 확인

성림문화재硏, 건물지·불상 등 발굴 결과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옛 신라의 중심지였던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에서 신라왕실의 종묘 사찰이었던 황복사(皇福寺)의 실체가 확인됐다.

(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박광열)은 1월 31일 경주 낭산 일대 발굴현장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신라 왕실사원의 위엄을 보여주는 대석단 기단과 12지신상 기단 건물지, 회랑지를 비롯해 연못 등에서 금동불·보살입상 7점 등 10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토된 유구와 불상들은 황복사지 삼층석탑 남쪽 일원에서 발굴돼 황복사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황복사는 654년(진덕여왕 8년) 의상대사(625~702)가 29세에 출가한 곳이다. 1942년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7호)을 해체 수리할 당시 나온 사리함의 명문 '종묘성령선원가람(宗廟聖靈禪院伽藍)'을 통해 신라왕실의 종묘 사찰 기능을 했을 것이라 추정돼 왔다.

문화재청은 전(傳) 황복사지의 실체 규명과 유적의 보존정비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주시 구황동 100번지 일대의 과수원과 경작지(4,628㎡)를 대상으로 1차 발굴을 진행했고, 효성왕(재위 737~742)을 위한 미완성 왕릉과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2차 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 대석단 기단 건물지와 부속 건물지, 회랑 터, 담장 터, 배수로, 도로, 연못 등 신라왕실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유구들이 발견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발굴조사에서 왕실사찰의 위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구는 대석단 기단 건물지이다. 서쪽의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에 덧붙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쪽 면에는 돌을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북쪽 면에는 자연석을 쌓아 약 60m에 이르는 대석단을 구축했다. 전면 중앙부 북쪽에는 돌계단을 설치됐다.

연구원은 "대석단 기단 건물지는 내부를 회랑을 돌린 독특한 구조로 이는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람배치다. 산지 가람의 특징과 함께 구



경주 낭산 일원서 출토된 7구의 금동불입상과 보살입상. 황복사지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유구이다.

중심 건물 석단 등 확인
傳황복사지 실체 규명돼
7구 금동불·보살상 출토
7~10세기 왕실사찰 역할
"신라왕경 연구 중요자료"

품연지로 추정되는 방지 등은 이후 조성된 불국사의 조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형식"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된 건물지가 특수한 용도의 건물이거나 황복사지의 중심 건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조사에 확인된 대석단 건물지 모습.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는 십이지신상 4구(토끼·뱀·말·양)가 조각된 석재가 불규칙한 간격으로 놓여 있으며, 대석단 건물지와 함께 황복사지의 중요 전각지로 추정된다. 십이지신상은 신라 왕릉에서 확인된 십이지신상 탱석과 비교했을 때 더 발달한 형태를 보이며 김유신묘(사적 제21호)의 십이지신상과 더불어 조각미가 뛰어나다. 이 탱석의 도상(圖像)은 김유신묘와 헌덕왕(809~826)능의 십이지신상보다 앞서며, 제작 연대는 8세기 중후반으로 보인다.

연못 등에서 나온 금동불입상과 금동보살입상 등 7점의 불상들을 비롯해 치미, 기와, 신장상 등 1000여 점의 출토 유물들도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출토 기와와 토기들은 대체로 7~9세기 유물로 당시 최고의 격조 높은 건축물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며 "7점의 불상 유물은 황복사지가 7~10세기 신라 왕실사찰로 유지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조사와 더불어 이번에 확인된 건물의 배치나 도로 등을 통해 낭산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금의 보문동 지역도 통일신라시대의 도시계획의 하나인 방리제(坊里制,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설계)에 의한 계획도시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발굴조사는 통일신라 시대 왕실사원과 신라왕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주시와 함께 황복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IJBTC 美ALTA DB색인 학술지 선정돼

유명 종교학 자료시스템 국내 학술지 중 2번째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발행하는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공동편집장 김종욱·리처드 맥브라이드, 이하 IJBTC)〉가 미국 유명 종교학 분야 전자자료시스템에 입성하게 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최근 동국대 불교학술원 발행 IJBTC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이하 ATLA)의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Religion Database) 1월 색인수록에 선정됐다"고 1월 28일 밝혔다.

ALTA는 종교학 및 신학의 학문적 연구를 돕기 위해 권위 있는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IJBTC가 등재된 ALTA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는 종교학과 신학 분야를 주로 수록하고 있는 전자자료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 종교학과 신학분야 출판물, 저널·단행본·에세이 등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색인·초록정보가 제공되며, 18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ATLA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에는 〈Buddhist Studies Review〉, 〈Comtemporary Buddhism〉 등 불교학 관련 저명 학술지 20여개만이 수록돼 있다. IJBTC는 국내 발행 국제학술지(외국어 발행) 중 2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불교학보〉도 지난해부터 ATLA에 수록돼 이번 IJBTC의 신규 수록으로 동국대는 국내 대학 중 ATLA 색인 학술지 최다 보유 기관이 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 전법 방법 모색한 '전법학연구' 13호 발간

전법과 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 창간된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의 〈전법학연구〉 13호가 발간됐다. 13호에는 전법학술상 수상 논문(바라밀상 1편, 전법상 2편)을 비롯해 5개 주제에 총 13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기획논문으로 '광덕 스님의 법등운동과 호법사상'을 조명한 논문 4편과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주제로 논문 4편이 게재됐다. 또한 광덕 큰스님의 제자 혜담지상 스님의 인터뷰는 광덕 큰스님의 법행과 불광운동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2030세대의 탈종교화, 청년불자의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청년전법을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법리뷰'도 수록됐다.

〈전법학연구〉는 2012년 창간됐으며, 전법과 교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논문 등을 소개해 왔다. 매년 1, 7월 2회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韓日 반가사유상 재질, 주석 함유량서 차이"

國博·오사카대, '한일 금동반가사유상' 연구서 발간

한국과 일본 소재 반가사유상이 재질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한국과 일본 소재의 반가사유상에 대한 최신 조사 결과를 수록한 〈한일 금동반가사유상-과학적 조사 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 오사카대학과 공동으로 2009~2012년 실시한 한국과 일본 소재의 금동반가사유상 43점(한국 소재 12점, 일본 소재 31점)에 대한 종합 조사의 결과물이다.

본문·고찰·부록으로 구성된 보고서에는 한국 소재의 12점과 일본 소재의 31점의 금동반가사유상 각각에 대한 해설, 도판, 성분분석 결과, 감마선 촬영, X선 CT 촬영, 3D 촬영 자료 등이 수록됐다.

사실상 한일 양국의 최초 반가사유상 전수 조사인 이번 연구를 통해 양식과 도상 분석과 같은 전통적 접근 방식 이외에 최신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 조사에 비중을 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과 일본 금동반가사유상의 재료적 특징을 규명한 점은 이번 연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다. 연구서에 따르면 한국 반가사유상은 바탕금속 성분이 구리-주석 합금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일본 반가사유상도 구리-주석 합금이 적지 않지 않으나 주석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반가사유상은 주석 함유량은 5% 이상이고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본 반가사유상은 주석 함유량이 3% 정도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한국 반가사유상에는 주석 외에 납이 함유돼 있었고, 그 양도 일본보다 많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순동제(純銅製) 반가사유상이 주류를 이뤘다.

이 같은 재질 금속의 차이점은 불상 세부 형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한국 5%이상, 일본 3% 그쳐
한국계 추정 日반가사유상들
최신장비 통한 과학 분석으로
불상 국적 새로운 견해 제시

대해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보고서에 수록한 고찰을 통해 "주석 또는 납의 함유량이 높은 한국에서는 세부 문양을 대부분 밀랍 성형 단계서 새겼다"면서 "순동제나 구리 함량이 높은 일본은 주조한 다음에 끌로 세부 문양을 새겨 넣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존의 추정된 국적을 확정하거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양식적으로 한국계로 추정됐던 나가노 간쇼인(觀松院) 반가사유상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의 나치(那智) 경총(經塚) 출토 반가사유상이 바탕금속 성분의 측면에서 한국 금동불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됐다. 후지오카 유타카(藤岡穰) 오사카대학 교수는 논고를 통해 교토 묘덴사(妙傳寺)와 효고 게이운사(慶雲寺)의 반가사유상이 한국 삼국시대의 작품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를 기획하고 총괄한 민병찬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조사로 한국과 일본 금동반가사유상의 재료와 제작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었다" "향후 더욱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